



바다 르네상스 국가 어항을 가다

▲ 프롤로그

21세기 어촌 어항의 새로운 청사진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창조적 활용, 안전성, 위생관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전남의 국가 어항들은 천혜의 자연 자원은 물론 육지의 관광지와 차별화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갖춰져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본 시리즈의 목적은 남도의 국가어항이 새 패러다임을 발판으로 삼터, 일터, 쉼터의 복합 기능을 지닌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생생하면서도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데 있다.

21세기 어항은 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지를 넘어 삼터, 일터, 쉼터의 복합기능을 지닌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국가 어항의 하나인 고흥 녹동항. /김진수기자 jeans@

남도의 푸른 미래, 바다의 르네상스 열다

바다가 지닌 장점 가운데 하나가 치유라는 모성의 기능이다. 바다 '해(海)'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어미 '모(母)'는 모든 생명의 시작과 원천을 뜻한다. 뜻을 따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삼수번(氵)'인 물 '수(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다 해(海)가 모성이라는 뜻과 이미지가 투영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는 '가이아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1979년 펴낸 '가이아,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는 관점'(1979)에서 지구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를 주관하는 여신 가이아에 비유했다. 지구는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 작용을 하는 생명체인 동시에 스스로 변화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유기체다.

인구의 급격한 팽창으로 지구는 초만원이 되다시피 했다. 다행히 인류에게는 창조주가 내린 '바다'라는 선물이 있다. 알려진 대로 바다에는 어류, 해조류, 파충류, 갑각류 등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처럼 바다는 인류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다. 에너지 자원의 측면에서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한 '노다지'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다변화, 청정화를 견인할 방안으로 바다를 활용할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그 가운데 서남해안을 끼고 있는 남도는 '어도(魚道)'라는 명성에 걸맞는 드넓은 바다와 수많은 섬들을 거느리고 있다. 2000여 개에 이르는 섬과 6400km에 이르는 해안, 연안에 분포한 갯벌은 '해양 자원의 보고'임에 틀림없다.

삼터·일터·쉼터 복합기능 지닌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움 정부 어촌어항 발전 계획 수립 전남 어항 부가가치 창출 기대

전남이 어업활동과 유통기지 등 해양자원 측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어항'이다. 일반적으로 어항(漁港)은 고깃배가 정박해 고기잡이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항구를 말한다.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확장된다. 전남에는 국가어항이 총 109개 중 31개, 지방어항이 총 284개 중 91개로 각각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어항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발간한 '국가 어항편람'에 따르면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항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항"을 말하며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지정권자와 개발주체, 관리청이 각기 다르게 구분된다. 국가어항은 해수부청관이 지정권자와 개발주체가 되며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관리자가 된다. 반면 지방어항은 지정권자와 개발주체가 시장·도시사시며 관리자는 광역시장과 시장·군수가 맡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남에 소재하는 국가어항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모두 9개의 지자체에 분포하

는데 ▲강진(마랑항) ▲신안(거제도항, 우이도항, 원평항, 전장포항) ▲고흥(녹동항, 발포항, 시산항, 여호항, 발포항) ▲영광(계마항, 안마항) ▲완도(도장항, 득암항, 사동항, 소안항, 보옥항, 여서항, 이목항, 청산도항) ▲여수(국동항, 남도항, 돌산항, 안도항, 연도항, 초도항) ▲장흥(회진항) ▲진도(서거창항, 서망항, 수품항) ▲해남(어란진항) 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에 열거된 어항들은 굴곡이 발달한 남해나 갯벌이 펼쳐진 서해 지역에 위치한다. 아름다운 풍광, 다도해, 광활한 갯벌 등 지역마다 다른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완만한 해안, 비경을 간직한 도서, 문화가 숨 쉬는 어촌을 끼고 있어 생태형 관광상품으로도 가치가 높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어도(漁道)인 남도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장기적으로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어촌과 어항 주민들의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어항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창조적 활용, 안전성, 위생관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전남의 국가어항들은 천혜의 자연 자원은 물론 육지의 관광지와 차별화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갖춰져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남도의 국가어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터, 일터, 쉼터의 복합 기능을 지닌 항구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의 대표 국가어항



◇ 녹동항

녹동항(鹿洞港)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어항이다. 1971년 12월 2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으며 다기능어항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녹동항과 연계해 떠오르는 섬이 바로 소록도다. 사슴의 형상을 닮았다하여 그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소록도 병원은 아픈 역사가 드리워진 공간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센인들이 집단 수용됐던 곳이다. 일제는 1916년부터 한센인들을 소록도에 격리했다. 그 과정에서 무수로 학대와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 녹동항에서 소록도는 불과 500여 미터 거리. 연륙교가 놓인 이후 사람들은 손쉽게 소록도를 찾는다. 울창한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진 비경은 여느 섬에 견줄 바 아니다. 녹동항을 근거지로 지난 세기의 아픔을 털고 새롭게 도약하는 소록도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 계마항

계마항(桂馬港)은 전남 영광군 흥봉읍 계마리에 있는 어항이다. 1971년 12월 2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계마항이 속한 계마리는 일설에 말이 해변을 향해 오는 형국이라 해서 마래(馬來)라고 했다고 한다. 계마항 인근에 유명한 가마미해수욕장이 위치한다. 계마와 가마미라는 명칭의 어원은 서로의 미가 상통된다.

계마항은 칠산어장 등 어업전진기지 및 외래어선의 대피항으로 양호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1982년 기본시설을 완공했다. 계마항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면 여섯 개의 섬을 볼 수 있다. 이 섬들은 '따로 또 같이' 조화를 이룬다. 일산도, 이산도, 삼산도, 사산도, 오산도, 육산도, 그리고 앞의 작은 섬을 칠산도라 부른다. 일반에게 알려진 칠산 바다의 일곱 개의 섬이 바로 이들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포바즈 네트워크 광주점

김성훈한의원

심의필 160315-증-30749

Yellow ID TALK
@ 포바즈광주점
친구추가 하세요.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

www.epocrates.co.kr

흰다리교정

체형교정

두암타운사거리

NAVER 김성훈한의원 검색

☎(062)263-8275